

대한건축사협회 회원가입 안내

- 정부에서는 WTO의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따른 건축사 자격의 국가간 상호 인정에 대비하기 위해 건축사법 개정(2011. 5. 30)을 통하여 UIA권고 기준에 의한 교육, 실무수련, 자격검증, 자격등록, 갱신등록, 계속교육을 근간으로 한 『건축사자격제도』를 도입하였고, 건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과 건축공사감리제도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요한 건축관련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에 대한건축사협회는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건축사등록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계 발전을 위한 건축제도의 개선 및 정책 개발, 건축정보 제공, 건축사의 권익신장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협회 정관과 회원신고관리규정을 개정하여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등록을 하면 건축사사무소 개설 여부와 관계없이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하였습니다.
- 대한건축사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등록건축사는 건축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소임을 다하여 건축계가 하나 되는 건축문화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종류

정회원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자격등록을 한 건축사 중 협회에 입회한 자
준회원	건축사법에 따라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축사와 외국에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협회에 입회한 자

■ 회원혜택

- 건축전문지 월간 <건축사>, 건축계 정론지 격주간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제공
- 건축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협회주관 각종 전시회 참여 기회 제공
- 건축관련 법령자료 제공
- ARCASIA 등 국제건축전 출품 기회 부여
- 회원복지서비스 혜택
- 건축관계 법령 질의·상담 및 대정부 건의
- 해외의 각종 건축관련 기술정보 및 국제행사 참여 기회 제공
- 건축사 실무교육 정보 제공
- 정부포상 추천

■ 정회원 가입절차

- 건축사 자격등록 후, 해당 시·도건축사협회 신고서류 제출 및 회비납부
- 제출서류 : 정회원 신고서, 건축사 자격등록증(전자문서), 반명함판사진 2장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추가 서류 :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 회비안내

1. 회비의 종류 및 금액

구 분	납 부 내 용	납부처
정회원	· 입회비 : 300만원(입회시 1회) · 월정회비 : 3만원(매월) · 시·도건축사협회 회비(입회비 및 월정회비) : 해당 시·도건축사협회 회칙에 따름	시·도건축사협회
준회원	· 입회비 : 50만원(가입시 1회) · 연회비 : 6만원	

2. 회비 사용처

- 입회비 및 정회원(준회원) 회비 : 건축문화발전 및 회원권익증진, 협회조직관리 운영자금 등

■ 본협회 및 시·도 건축사협회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FAX번호	구 분	전화번호	FAX번호	구 분	전화번호	FAX번호
본협회	(02)3415-6800	(02)3415-6855	대 전	(042)485-2813-5	(042)485-2818	충 남	(041)338-4088	(041)338-4188
서 울	(02)581-5715~8	(02)523-2284	울 산	(052)274-8836	(052)268-8837	전 북	(063)251-6040	(063)251-6048
부 산	(051)633~6677	(051)634-2966	세 종	(044)862-6336	(044)862-6226	전 남	(061)285-7563~4	(061)285-7567
대 구	(053)753-8980	(053)756-9049	경 기	(031)247-6129~30	(031)242-7072	경 북	(054)859-8170	(054)859-8175
인 천	(032)437-3381~4	(032)437-3385	강 원	(033)254-2442	(033)255-2083	경 남	(055)246-4530	(055)245-4530
광 주	(062)521-0025~6	(062)528-0026	충 북	(043)223-3084~6	(043)223-3089	제 주	(064)752-3248	(064)756-3248

* 회원가입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해당 시·도건축사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등록실적팀(☎ 02-3415-685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2, 제3의 승효상 건축사를 배출하라!

*승효상 건축사는 현업과 이론 및 정책 모두에 참여, 주도하는 유일하고 상징적인 인물이어서 본 글의 제목에 표현하였습니다.

Produce a second or third architecture 'Seung Hyo-sang'!

글. 홍성용
Hong, Sungyong
본지 편집국장

한국 건축계를 위해서 우리는 현업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해야 한다. 동시에 이론과 정책 모두에 개입해야 한다. 해방 이후 한국 건축계를 흔드는 중요한 정책과 방향은 항상 외부에 의해서 진행됐다. 정치인이나 행정가에 의해 주도된 수많은 정책들이 건축계의 방향을 결정짓곤 했다. 아쉽게도 건축계는 항상 뒷북이었다. 주도한 적이 없었다. 당연하다. 한 번도 정책적 이슈를 먼저 제안하고 발언하지 않았으니 말이다.

의사 결정과 정책 진행 과정에 개입하지 못하고, 발표 이후 진행되는 것들만 수습하기에 바빴다. 현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동분서주 뛰어다녔다. 그 결과, 미시적이거나 현업에서 정책 개입의 틈이 생기고 있다.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이면에는 대중적 인지도와 정책적 영향력이 큰 현 국가 건축정책위원장 승효상 건축사의 존재 때문이었다. 누가 뭐래도 그는 수많은 작품으로 모험하고 도전해왔다. 그의 작품들은 매번 새로운 시도로 변환됐다. 사회 참여에도 적극적이었다. 모두가 뒤에서 말할 때 그는 전면에 나서서 묵묵히 바람막이가 되었다. 치밀함도 갖췄고, 조직화에도 능하다. 이론과 현장, 정

책을 아우르는 그의 노력에 후배 건축사로서 감사할 따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축계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제2, 제3의 승효상이 이어져야 한다. 아쉽

게도 다음 주자가 보이지 않는다.

다행히 가능성이 보이는 후배 건축사들이 여럿 활동하고 있다. 미진하지



만 이들을 주목하고 우리가 성장시켜야 한다. 후원이 필요하다면 적극 지원해야 한다. 모두의 생각이 같지 않고 동의를 얻는 것도 힘들겠지만, 우선순위가 있으니 거시적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 지금 우리 건축계에는 이런 방향타가, 이런 건축사가 필요하다.

이런 절실함이, 본업으로 건축사 업무를 하는 현장에서 나와야 한다.

생존형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건축사 개인이 헌신해서 전면에 나서긴 쉽지 않다. 하지만 현업에서 이상적인 방향이나 이론적 방향성이 나와 줘야 한다. 그 래야만 한국 건축계의 위상과 입지가 선다.

이미 일본은 백 년 전부터 현업 건축사들이 모든 것을 주도해오고 있다. 특히 단계 겐조, 아라타 이소자키, 토요 이토를 잇는 현업 건축사들의 활약은 세계 건축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일본 건축의 현재를 만들어 냈다. 미국은 어떠한가? 필립 존슨, 루이스 칸, 리처드 마이어, 프랭크 게리 등 현업 건축사 모두가 정책과 현장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다.

유럽도 마찬가지다. 건축이 살아 있으려면 현업 건축사들이 사회 전면에 나서 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건축계는 이를 지원해야 한다. 그것이 정책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건축이 생존할 길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2, 제3의 승효상 건축사를 50대, 40대, 30대에서 찾아내 발굴해야 한다. 당연히 있다. 그들을 응원해야 우리 모두가 산다.

비전과 미래, 대안을 제시하는 선도적 건축사(Visionary Architect)를 후원하고 응원하자!